

일당백의 관심과 노력, 드넓은 사업장을 책임지는 힘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컨설팅

글 이승열 사진 정익환

한국마사회 제주본부가 관장하는 ‘렛츠런파크 제주’의 규모는 약 96만㎡, 축구장 96개를 합친 크기와 비슷하다. 3명의 팀원이 담당하기에는 광활한 크기지만 그동안의 중대재해 건수는 ‘제로’다. 적은 인원의 팀이지만 큰 노력과 관심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드는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산업안전보건팀의 이야기를 담았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제주 향토마인 제주마를 보호·육성·지원하고, 제주도의 관광 산업에 기여하고자 1990년 세워진 경마공원이다. 현재는 제주마 경주대회를 지원 및 중계하고 있으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인 렛츠런파크 제주를 운영한다. 이곳의 고객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고객안전부 산업안전보건팀은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등 총 3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안전보건팀의 규모는 작지만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흘리는 땀방울의 무게는 타 사업장과 다를 바가 없다. 이곳에는 상시 노동자보다 경마가 열리는 날에만 출근하는 노동자가 많다. 비교적 부족할 수 있는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노동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위험신고제가 대표적이다. 근무 중 위험 요소를 발견할 경우, 노동자가 이를 직접 신고하면 의견을 청취한 산업안전보건팀이 해당 현장을 관찰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도출해 낸다. 이러한 의견을 1년간 종합 후 사업장 내 안전보건문화 확산에 기여한 노동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하기도 한다.

소통 불가능한 동물과 일하다 보니 아차사고도 종종 일어난다. 아무리 훈련을 잘 받은 말이라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움직이면 주위에 있던 노동자가 크게 다칠 수 있다. 마필관리 부서 노동자들은 목재 분진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팀은 노동자에게 보호구 착용이나 분진을 감소시키는 살수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등 노동자 질병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크고 작은 변수들이 존재하기에 산업안전보건팀 팀원들은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중대재해 제로라는 목표는
노동자의 참여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보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며,
서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책임, 감정 노동자 보호

그 시스템이 가장 필요했던 곳은 고객을 최일선에서 응대하는 부서였다. 특히 테마파크라는 특성상 서비스 직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상당수고, 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노동자도 적지 않았다.

“폭언, 폭행 등을 행하는 방문객에게 아주 완고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유도하고 있어요. 사후에도 신고 및 형사고발을 권유하고 있고요. 물리적인 안전 이외에도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저희의 책임 중 하나죠. 물론 매너가 좋은 고객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강력한 대응을 약속한 문미정 보건관리자는 이외에도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마음의 건강을 점검하고 있으며,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는 노동자에게는 개인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정신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아 자칫 놓칠

수 있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듣기 위해 문미정 보건관리자는 오늘도 현장을 발로 뚫다.

컨설팅과 함께 외치는 중대재해 제로!

흐르는 물을 막아도 손 틈 사이로 조금씩 새어 나오는 것처럼, 안전보건을 확실하게 관리하더라도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조그마한 빈틈은 존재하기 나름이다.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산업안전보건팀은 이 조그마한 빈틈까지 확실하게 틀어막고자 전문가의 손을 빌렸다. 대한산업보건협회에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신청한 계기다. 이곳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는 빈번하지 않지만, 그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했다고 문미정 보건관리자는 설명한다.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의 보건관리 기준을 준수하며 모든 노동자가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벌써 3년째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요. 사업장에 안전보건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도 중요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덕분에 노동자가 더욱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렛츠런파크를 뛰어다니는 말들처럼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항상 분주한 발걸음을 옮기는 그들, 앞으로의 목표는 중대재해 발생 건수를 매 순간 ‘0’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위해 그들은 또 하나의 다짐을 가슴속에 새긴다.

“중대재해 제로라는 목표는 노동자의 참여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보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며, 서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Mini Interview

“안전은 예방 중심의 문화에서 시작합니다”

제주본부 제주고객안전부 장경민 부장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제주고객안전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정립 및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업장을 점검 및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및 훈련을 통해 노동자의 사고 예방 능력을 강화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조치들로 중대재해 제로라는 안전보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부문 다짐과 포부를 들려주세요.

사업장 내 모든 작업 과정과 환경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방식을 지속해 나간다면 행복한 사업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은 예방 중심의 문화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노동자와 건강한 문화를 함께 만들겠습니다.